'항저우 참사' 한국 남자배구, 인도에 11년 만의 충격패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47&aid=0002407132

항저우 아시안게임 첫 경기서 2-3 패배... 고개 숙인 '임도헌호' ▲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 배구 대표팀이 인도와의 경기에서 블로킹을 시도하고 있다 ⓒ AVC 한국 남자배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첫 경기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다.임도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0일 중국 항저우 린핑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C조 예선 첫 경기에서 인도에 세트 스코어 2-3(27-25 27-29 22-25 25-20 15-17)으로 졌다.세계랭킹 27위 한국은 2006년 도하 대회 이후 17년 만의 금메달을 목표로 이번 대회에 나섰으나, 첫 경기부터 한 수 아래로 여겼던 세계랭킹 73위 인도에 패했다.프로 선수가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한국이 인도에 패한 것은 2012년 베트남에서 열렸던 아시아배구연맹(AVC)컵 경기 이후 무려 11년 만이다. 한국은 당시에도 풀세트 접전 끝에 패했었다.힘겨웠던 1세트 승리... 충격패 예감했나 한국은 주장을 맡은 세터 한선수를 비롯해 미들 블로커 김규민과 김준우, 아웃사이드 히터 나경복과 전광인, 아포짓 스파이커 허수봉, 리베로 박경민이 선발로 나섰다.1세트 초반에 한국은 허수봉의 오픈 공격과 나경복의 서브 에이스가 터지면서 먼저 주도권을 잡았다. 그러나 키 202㎝의 미들 블로커 아스왈 라이를 앞세운 인도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20-22로 역전을 허용했다가 전광인의 서브 에이스로 다시 역전한 한국은 듀스에서 나경복의 연타 공격과 인도의 범실에 힘입어 27-25로 이겼다. 그러나 2세트에서도 듀스 접전이 벌어졌고, 이번에는 한국이 쿠마르 비니트에게 오픈 공격을 맞은 뒤 임동혁의 오픈 공격이 라이의 블로킹에 막히면서 인도가 29-27로 승리하며 균형을 맞췄다. 기세가 오른 인도는 3세트에서도 큰 키를 활용한 고공 폭격으로 득점을 올렸다. 반면에 한국은 공격이 연거푸 막히면서 고전했다. 임도헌 감독은 세터를 황택의로 교체하며 변화를 꾀했으나, 22-25로 내주면서 벼랑 끝에 몰렸다.다행히 한국은 강력한 서브로 인도의 리시브 라인을 공략했고, 3세트에서 부진했던 나경복이 살아나면서 4세트를 25-20으로 따내고 한숨을 돌렸다.17년 만의 금메달 사냥, 이날 패배가 '약' 될까  ▲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 남자 배구 대표팀을 이끄는 임도헌 감독ⓒ AVC 하지만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 5세트에서 한국은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실을 저지르며 인도에 끌려갔다. 12-14로 매치 포인트를 내준 한국은 전광인의 오픈 공격과 나경복의 다이렉트 킬로 2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극적으로 듀스를 만들었다.그리고 나경복의 오픈 공격 덕분에 15-14로 역전에 성공했으나, 기쁨도 잠시였고 나경복과 허수봉의 공격이 모두 가로막히면서 끝내 패하고 말았다. 한국은 나경복이 양 팀 통틀어 최다인 31점을 올렸고, 전광인과 허수봉도 나란히 22점을 올렸다. 하지만 좌우 날개를 다양하게 활용한 인도의 공격과 달리 너무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고집했다. 또한 간판 공격수인 정지석이 허리 통증 탓에 출전하지 못한 것도 아쉬웠다. 아시안게임 남자 배구는 19개국이 참가했다. 6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러서 각 조 1, 2위가 1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인도, 캄보디아와 함께 C조에 속한 한국은 조 1위를 기대했으나 첫 경기부터 인도에 패했다. 전날 캄보디아와의 대결에서도 세트 스코어 3-0으로 이긴 인도는 2연승을 질주하며 조 1위를 확정했다. 한국도 21일 캄보디아를 꺾으면 조 2위로 12강에 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에 생각지 못했던 패배를 당하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또한 앞으로 남은 경기도 무난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날 패배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팀에 약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여자배구 KGC인삼공사, 정관장으로 명칭 공식 변경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01&aid=0014205168

정관장으로 새롭게 단장한 여자배구 KGC인삼공사[정관장 프로배구단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이 20일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어 여자부 KGC인삼공사의 구단 명칭을 정관장 레드스파크스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했다. KGC인삼공사 스포츠단은 최근 핵심 브랜드 '정관장'을 재단장하면서 스포츠단 명칭을 정관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여자 프로배구단 이름을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남자 프로농구단 명칭을 '정관장 레드부스터스'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자배구 정관장은 기존 구단의 동의를 구해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되기 전인 지난 10일 열린 여자배구 신인선수 드래프트부터 '정관장' 명칭을 사용해왔다. 정관장은 프로리그 출범 첫해인 2005년 KT&G 배구단으로 시작해 2005-2006시즌부터 2009-2010시즌까지 KT&G 아리엘즈, 2010-2011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10년 넘게 KGC인삼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또한 연맹은 신규 운영본부를 구성하고 아시아 쿼터제 신설 승으로 인한 규정 현실화를 위해 연맹 규정을 개정했다. 경기 운영본부는 명칭을 운영본부로 변경했고, 기존 남자부만 적용했던 3시즌 경과 FA 선수의 자유 신분 변경을 여자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리그에 처음 도입된 아시아 쿼터제를 규정에 반영했고, 경기 중 세트 퇴장 시 다음 경기 출장 정지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제재금을 상향했다. 또한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 학교 지원금을 올 시즌 총 9억1천만원(구단별 1억3천만원)에서 다음 시즌부터 총 7억원(구단별 1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4bun@yna.co.kr

여자배구, 4회 연속 올림픽 본선행 무산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21&aid=0002595421

여자배구 대표팀의 세사르 에르난데스 곤살레스 감독. 뉴시스 한국 여자배구의 4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 무산됐다.세사르 에르난데스 곤살레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0일 오후(한국시간) 폴란드 우치에서 열린 미국과 2024 파리올림픽 예선 C조 4차전에서 1-3(25-20, 17-25, 19-25, 17-25)으로 패했다.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가진 미국을 상대로 접전 끝에 첫 세트를 가져오며 이변을 일으키는 듯했으나 이후 3세트를 내리 내주고 전력의 열세를 절감했다.한국은 이날 패배로 사실상 파리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다. 4패(승점 1)가 된 한국은 C조 8개국 중 5위다. 남은 3경기에서 모두 승리해도 2위 이내에 들지 못한다. 올림픽 출전권은 총 12장이다. 이번 대회는 3개 조의 1, 2위가 본선 출전권(6장)을 얻는다. 남은 6장의 출전권 가운데 한 장은 개최국 프랑스가 갖고, 남은 5장은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랭킹으로 분배한다. 도쿄올림픽 직후 10위 이내 진입을 노렸다가 30위 밖으로 밀려난 한국이 세계랭킹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한국은 2012 런던올림픽을 시작으로 앞선 3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았다. 이 중 2012 런던 대회와 2020 도쿄 대회에서 4강에 진출하며 세계적인 기량을 뽐냈다. 그러나 김연경(흥국생명) 등의 대표팀 은퇴 이후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올림픽 예선 직후 출전하는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의 메달 전망도 불투명하다. 다만 올림픽 예선을 거치며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 위안이다.

한국 남자배구 ‘항저우 참사’…인도에 2-3 무릎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21764?sid=104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패배로 시작한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 항저우=뉴시스한국 남자배구 대표팀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첫 경기에서 인도에 무릎을 꿇었다.국제배구연맹(FIVB) 랭킹 27위 한국은 20일 중국 항저우 린핑(臨平)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C조 예선 첫 경기에서 인도(73위)에 2-3(27-25, 27-29, 22-25, 25-20, 15-17)으로 재역패했다.군 복무 중인 나경복(29)이 31점, 전광인(32)과 허수봉(25·이상 현대캐피탈)이 각 22점을 올렸지만 승리를 따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정지석(28·대한항공)은 이날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프로 선수가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한국이 인도에 패한 건 2012년 제3회 아시아배구연맹(AVC)컵 준결승 이후 11년 만이다.이번 대회 남자배구는 A~F 6개 조로 나눠 예선을 치른 뒤 조별 1, 2위가 1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C조에는 한국과 인도 그리고 캄보디아 세 나라가 속해 있다.인도는 캄보디아에 3-0(25-14, 25-13, 25-19) 승리를 거둔 뒤 이날도 승리하면서 조 1위를 확정했다.한국도 21일 열리는 조별 예선 두 번째 경기에서 캄보디아를 물리치면 조 2위로 12강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다.

남자배구, 73위 인도에 11년 만에 충격패... 메달 사냥 빨간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61647?sid=104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 선수들이 20일 중국 항저우 린핑 스포츠센터체육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배구 C조 조별리그 1차전 인도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3으로 패한 후 아쉬워하고 있다. 항저우=연합뉴스임도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배구(세계 27위)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첫 경기에서 세계 73위의 인도에 처참하게 패하며 금메달 사냥에 빨간불이 켜졌다. 프로 선수가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한국이 인도에 패한 건 2012년 베트남에서 벌인 제3회 아시아배구연맹(AVC)컵 이후 무려 11년 만이다.한국 대표팀은 20일 중국 항저우 린핑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C조 예선 첫 경기에서 인도에 세트 스코어 2-3(27-25 27-29 22-25 25-20 15-17)으로 졌다.한국 남자배구는 2006년 도하 대회 이후 17년 만의 금메달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공식 개막(23일)하기도 전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한국은 21일 오후 2시 30분 열리는 캄보디아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승리해야 조 2위로 12강이 겨루는 2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다. 인도는 캄보디아전(3-0 승)에 이어 2연승을 거둬 C조 1위를 확정했다.아시안게임 남자 배구에는 19개 팀이 참가해 6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벌여, 각 조 1, 2위가 1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C조에는 한국을 포함해 3개 팀만 출전했다.한 수 아래로 여겨졌던 인도지만 한국은 시종일관 고전했다. 주전 세터 한선수의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고 정지석은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 나경복이 31점, 전광인과 허수봉이 각각 22점씩을 올렸지만 역부족이었다.1세트 중반까지 팽팽한 경기를 펼치던 한국은 상대 속공에 고전하며 20-22, 2점 차로 끌려갔다. 전광인과 나경복의 연속 득점으로 동점을 만든 한국은 상대 범실 등에 힘입어 27-25로 승리했다.그러나 2세트부터 급격히 흔들렸다. 한선수가 흔들리면서 끌려가기 시작한 한국은 세터를 황택의로 교체하고 허수봉을 함께 투입해 분위기를 바꿨지만 결국 인도의 저력을 당해내지 못하고 27-29로 내줬다.3세트는 더욱 맥없이 내줬다. 상대 속공을 전혀 막지 못하면서 결국 22-25로 패했다. 한국은 4세트 들어 황택의의 공격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상대 범실까지 유도해 내며 25-20으로 잡고 승부를 최종 5세트로 끌고 갔다.한국은 5세트 12-12에서 연속 2실점으로 매치 포인트에 몰렸으나, 전광인의 공격에 이어 나경복의 직접 강타로 듀스를 만들었다. 15-14 역전까지 성공했던 한국은 상대의 높은 블로킹에 나경복, 허수봉의 공격이 잇따라 블로킹에 막히며 15-17로 패했다.

‘金 도전’ 남자배구, 세계 73위 인도에 충격패 [항저우 AG]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00911?sid=104

한국 선수들이 인도에 패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헤럴드경제=김성진 기자] 17년만에 금메달을 노리고 나선 한국 남자배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1차전에서 약체 인도에 불의의 일격을 당했다. 한국이 인도에 패한 건 2012년 제3회 아시아배구연맹(AVC)컵 이후 무려 11년 만이다.임도헌 감독이 이끄는 한국(세계 랭킹 27위)은 20일 중국 항저우 린핑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C조 예선 첫 경기에서 인도(73위)에 세트 스코어 2-3으로 졌다. 금메달을 목표로 장도에 올랐던 대표팀으로서는 12강 진출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약팀에 패하면서 팀 사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아시안게임 남자 배구에는 19개 팀이 6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 조 1, 2위가 1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C조에는 3개 팀만 속해 한국은 21일 캄보디아전에서 승리하면 조 2위로 12강에 진출해 메달 도전을 이어갈 수 있다. 캄보디아는 인도에 0-3으로 패했다.

인도에게 덜미 잡힌 한국 남자배구…‘우물 안 개구리’였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7605?sid=104

한국 배구대표팀의 임동혁이 20일 중국 항저우 린핑 스포츠센터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남자배구 C조 1차전에서 인도 선수를 상대로 공격하고 있다.항저우/연합뉴스“우승(아시안게임 금메달)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5년 전 한 국회의원이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금메달을 따고 돌아온 선동열 감독을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러서 한 말이다. 당시의 ‘웃픈’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한국 남자배구팀의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첫 경기 패배 때문이다.임도헌 감독이 이끄는 한국남자배구팀은 20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C조 예선 첫 경기 인도전에서 2-3(27-25 27-29 22-25 25-20 15-17)으로 졌다. 그동안 인도를 어려운 상대로 여기지 않았고, 세계 랭킹에서도 인도(73위)를 앞선 한국(27위) 선수단한테는 예상밖의 결과다. 배구대표팀의 한선수는 “인도는 높이를 갖춘 데다, 오늘은 실수까지 줄였다”고 평했다.한국 남자배구가 아시안게임 C조(한국 인도 캄보디아) 1~2위에 주어지는 12강 진출권을 놓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2006 도하 대회 이후 17년 만의 아시안게임 정상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는 머쓱해졌다. 한국은 그동안 아시아를 넘어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올렸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프로종목이 인기를 얻고 있다. 여자배구 팬몰이 돌풍에 힘입어 남자배구도 많은 관중을 모으고 있다.하지만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여자배구팀의 2024 파리올림픽 출전 꿈은 좌절했고, 여자농구도 올림픽에 나가지 못한다. 남자배구는 20년 이상 올림픽 무대에 나서지 못했다.아시아권의 후발 주자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배구에서 한국을 꺾은 인도는 사격에서도 중국과 함께 아시아 최강으로 부상했다. 축구의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국내 열기를 배경으로 국가대표팀 경기나 클럽팀 대회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남자축구가 예선 첫 경기 쿠웨이트전 대승(9-0)을 거뒀지만 결승 진출과 우승까지 갈 길은 멀다. 한국은 이번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다. 병역이나 연금 점수 등이 걸려 있어 선수들한테도 중요한 대회다. 종목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내년 파리올림픽의 전초전 무대가 아시안게임이다. 하지만 대회 개막(23일)전에 일어난 배구대표팀의 예선전 패배를 보면, 아시안게임 무대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상대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선수단 전체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이 둥글고, 변수는 많은’ 구기 종목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것 같다.

김연경 없는 女배구 대표팀, 파리올림픽 본선 사실상 무산…예선 4연패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22&aid=0003857867

미국에 1-3 패 20일(한국시간) 폴란드 우쯔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예선 C조 4차전 미국과의 경기에서 리시브하는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 강소휘(가운데). 우쯔=연합뉴스   대한민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2024 파리 올림픽 예선에서 4연패를 당하며 올림픽 본선 진출이 사실상 무산됐다.   세자르 에르난데스(45·스페인) 감독이 이끄는 한국(세계랭킹 36위)은 20일(한국시간) 폴란드 우쯔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예선 C조 4차전에서 미국(세계랭킹 3위)에 세트스코어 1-3(25-20, 17-25, 19-25, 17-25)으로 패했다.   이로써 한국은 이탈리아(5위), 폴란드(7위), 독일(12위)전에 이어 4연패하게 됐다.   한국은 남은 콜롬비아(22일), 태국(23일), 슬로베니아(24일)전에서 전승하더라도 3승 4패가 돼 조 2위까지 가능한 파리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다. 현재 C조는 이탈리아와 미국이 이미 4전 전승을 거둔 상태다.   2024 파리 올림픽 여자배구 본선에는 총 12팀이 출전한다. 이번 대회 3개 조 상위 2개팀씩 6개팀에 개최국 프랑스까지 7개국이 진출한다.   나머지 5자리는 세계랭킹 상위팀에 돌아가되, 본선 진출 팀이 없는 대륙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최근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등 국제대회에서 잇딴 부진을 겪은 한국은 아시아 내에서도 최고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티켓 확보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1세트에서는 표승주와 강소휘의 ‘양 날개’가 활약하며 25-20으로 앞서는 ‘이변’을 일으켰다.   하지만 2세트 이후 흐름이 급격하게 넘어갔고 한국이 추격에 나서는 모양새로 접어들었다. 4세트 들어서는 무기력한 플레이로 연속 실점하는 등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결국 패하고 말았다.   한국은 강소휘가 팀 내 최다 13점, 표승주가 11점, 정호영이 10점 등으로 분전했지만 반전을 이루는데는 부족했다.   한편 여자배구 대표팀의 주포였던 김연경(35·흥국생명)은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을 4강으로 이끈 뒤 대표팀에서 은퇴했다.

승리 만끽하는 남자 배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66397?sid=104

(항저우(중국)=뉴스1) 유승관 기자 = 21일 중국 항저우 린핑 스포츠센터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배구 C조 조별리그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승리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자축하고 있다. 2023.9.21/뉴스1

'항저우 참사' 한국 남자배구, 인도에 11년 만의 충격패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47&aid=0002407132

항저우 아시안게임 첫 경기서 2-3 패배... 고개 숙인 '임도헌호' ▲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 배구 대표팀이 인도와의 경기에서 블로킹을 시도하고 있다 ⓒ AVC 한국 남자배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첫 경기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다.임도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0일 중국 항저우 린핑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C조 예선 첫 경기에서 인도에 세트 스코어 2-3(27-25 27-29 22-25 25-20 15-17)으로 졌다.세계랭킹 27위 한국은 2006년 도하 대회 이후 17년 만의 금메달을 목표로 이번 대회에 나섰으나, 첫 경기부터 한 수 아래로 여겼던 세계랭킹 73위 인도에 패했다.프로 선수가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한국이 인도에 패한 것은 2012년 베트남에서 열렸던 아시아배구연맹(AVC)컵 경기 이후 무려 11년 만이다. 한국은 당시에도 풀세트 접전 끝에 패했었다.힘겨웠던 1세트 승리... 충격패 예감했나 한국은 주장을 맡은 세터 한선수를 비롯해 미들 블로커 김규민과 김준우, 아웃사이드 히터 나경복과 전광인, 아포짓 스파이커 허수봉, 리베로 박경민이 선발로 나섰다.1세트 초반에 한국은 허수봉의 오픈 공격과 나경복의 서브 에이스가 터지면서 먼저 주도권을 잡았다. 그러나 키 202㎝의 미들 블로커 아스왈 라이를 앞세운 인도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20-22로 역전을 허용했다가 전광인의 서브 에이스로 다시 역전한 한국은 듀스에서 나경복의 연타 공격과 인도의 범실에 힘입어 27-25로 이겼다. 그러나 2세트에서도 듀스 접전이 벌어졌고, 이번에는 한국이 쿠마르 비니트에게 오픈 공격을 맞은 뒤 임동혁의 오픈 공격이 라이의 블로킹에 막히면서 인도가 29-27로 승리하며 균형을 맞췄다. 기세가 오른 인도는 3세트에서도 큰 키를 활용한 고공 폭격으로 득점을 올렸다. 반면에 한국은 공격이 연거푸 막히면서 고전했다. 임도헌 감독은 세터를 황택의로 교체하며 변화를 꾀했으나, 22-25로 내주면서 벼랑 끝에 몰렸다.다행히 한국은 강력한 서브로 인도의 리시브 라인을 공략했고, 3세트에서 부진했던 나경복이 살아나면서 4세트를 25-20으로 따내고 한숨을 돌렸다.17년 만의 금메달 사냥, 이날 패배가 '약' 될까  ▲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 남자 배구 대표팀을 이끄는 임도헌 감독ⓒ AVC 하지만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 5세트에서 한국은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실을 저지르며 인도에 끌려갔다. 12-14로 매치 포인트를 내준 한국은 전광인의 오픈 공격과 나경복의 다이렉트 킬로 2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극적으로 듀스를 만들었다.그리고 나경복의 오픈 공격 덕분에 15-14로 역전에 성공했으나, 기쁨도 잠시였고 나경복과 허수봉의 공격이 모두 가로막히면서 끝내 패하고 말았다. 한국은 나경복이 양 팀 통틀어 최다인 31점을 올렸고, 전광인과 허수봉도 나란히 22점을 올렸다. 하지만 좌우 날개를 다양하게 활용한 인도의 공격과 달리 너무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고집했다. 또한 간판 공격수인 정지석이 허리 통증 탓에 출전하지 못한 것도 아쉬웠다. 아시안게임 남자 배구는 19개국이 참가했다. 6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러서 각 조 1, 2위가 1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인도, 캄보디아와 함께 C조에 속한 한국은 조 1위를 기대했으나 첫 경기부터 인도에 패했다. 전날 캄보디아와의 대결에서도 세트 스코어 3-0으로 이긴 인도는 2연승을 질주하며 조 1위를 확정했다. 한국도 21일 캄보디아를 꺾으면 조 2위로 12강에 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에 생각지 못했던 패배를 당하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또한 앞으로 남은 경기도 무난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날 패배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팀에 약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금메달 노린다던 남자배구, 아시안게임 예선 첫 경기서 인도에 충격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89045?sid=104

남자배구 대표팀 선수들이 20일 중국 항저우 린핑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C조 1차전에서 인도에 패배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17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한국 남자 배구 대표팀이 예선 1차전부터 충격패를 당했다. 한국은 20일 중국 항저우 린핑 스포츠센터에서 벌인 C조 1차전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인도에 세트 스코어 2대3(27-25 27-29 22-25 25-20 15-17)으로 패배했다. 프로 선수가 출전하는 국제대회에서 한국이 인도에 패한 건 2012년 아시아배구연맹컵 이후 11년 만이다.세계 랭킹 27위인 한국은 73위 인도를 상대로 초반부터 접전을 벌였다. 첫 두 세트를 듀스 혈투 끝에 1세트씩 나눠가졌다. 3세트를 쉽게 내준 한국은 세터를 한선수(38·대한항공)에서 황택의(27·상무)로 바꾸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황택의의 날카로운 토스와 강력한 서브를 바탕으로 4세트를 5점 차로 따냈다. 그러나 5세트에서 듀스 접전 끝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15-15로 맞서던 상황에서 인도에게 블로킹 2개를 연달아 내주고 패배했다.한국은 이날 나경복(29·KB손해보험) 31점, 허수봉(25·현대캐피탈)과 전광인(32·현대캐피탈) 22점 등 공격 득점 83점을 올려 인도(67점)를 앞섰다. 그러나 높이에서 밀렸다. 한국이 블로킹 6개를 잡아낸 반면, 인도는 12개를 성공시켰다. 범실도 36개로 인도(19개)보다 많았다.이날 경기 결과로 한국, 인도, 캄보디아가 속한 C조 1위는 인도로 결정됐다. 인도는 전날 캄보디아를 3대0으로 제압한 뒤 한국까지 꺾어 2승을 올렸다. 1패씩을 떠안은 한국과 캄보디아는 21일 오후 3시 30분 대결한다. 이 경기 승자가 조 2위로 1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김연경 없는 女배구 대표팀, 파리올림픽 본선 사실상 무산…예선 4연패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22&aid=0003857867

미국에 1-3 패 20일(한국시간) 폴란드 우쯔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예선 C조 4차전 미국과의 경기에서 리시브하는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 강소휘(가운데). 우쯔=연합뉴스   대한민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2024 파리 올림픽 예선에서 4연패를 당하며 올림픽 본선 진출이 사실상 무산됐다.   세자르 에르난데스(45·스페인) 감독이 이끄는 한국(세계랭킹 36위)은 20일(한국시간) 폴란드 우쯔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예선 C조 4차전에서 미국(세계랭킹 3위)에 세트스코어 1-3(25-20, 17-25, 19-25, 17-25)으로 패했다.   이로써 한국은 이탈리아(5위), 폴란드(7위), 독일(12위)전에 이어 4연패하게 됐다.   한국은 남은 콜롬비아(22일), 태국(23일), 슬로베니아(24일)전에서 전승하더라도 3승 4패가 돼 조 2위까지 가능한 파리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다. 현재 C조는 이탈리아와 미국이 이미 4전 전승을 거둔 상태다.   2024 파리 올림픽 여자배구 본선에는 총 12팀이 출전한다. 이번 대회 3개 조 상위 2개팀씩 6개팀에 개최국 프랑스까지 7개국이 진출한다.   나머지 5자리는 세계랭킹 상위팀에 돌아가되, 본선 진출 팀이 없는 대륙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최근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등 국제대회에서 잇딴 부진을 겪은 한국은 아시아 내에서도 최고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티켓 확보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1세트에서는 표승주와 강소휘의 ‘양 날개’가 활약하며 25-20으로 앞서는 ‘이변’을 일으켰다.   하지만 2세트 이후 흐름이 급격하게 넘어갔고 한국이 추격에 나서는 모양새로 접어들었다. 4세트 들어서는 무기력한 플레이로 연속 실점하는 등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결국 패하고 말았다.   한국은 강소휘가 팀 내 최다 13점, 표승주가 11점, 정호영이 10점 등으로 분전했지만 반전을 이루는데는 부족했다.   한편 여자배구 대표팀의 주포였던 김연경(35·흥국생명)은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을 4강으로 이끈 뒤 대표팀에서 은퇴했다.

한국 배구, 첫 경기는 패배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03&aid=0012102804

[항저우(중국)=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일 중국 항저우 린핑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배구 조별리그 C조 1차전 대한민국 대 인도 경기, 세트스코어 2대3으로 인도에 패한 한국 임도헌 감독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3.09.20. kkssmm99@newsis.com[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승리 만끽하는 남자 배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66397?sid=104

(항저우(중국)=뉴스1) 유승관 기자 = 21일 중국 항저우 린핑 스포츠센터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배구 C조 조별리그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승리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자축하고 있다. 2023.9.21/뉴스1

男 배구의 절실한 첫 승, 그런데 에이스가 빠졌다…"허리 통증 때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15009?sid=104

20일 오후 중국 항저우 린핑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배구 조별리그 1차전 한국과 인도의 경기에서 인도에 패한 대표팀 선수들이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항저우=황진환 기자한국 남자 배구 대표팀이 약체 인도에 일격을 당했다. 에이스 정지석(28·대한항공)의 부재가 유독 아쉬웠던 경기였다.임도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0일 중국 항저우 린핑 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별 리그 C조 인도와 1차전에서 세트 스코어 2 대 3(27-25, 27-29, 22-25, 25-20, 15-17) 패배를 당했다. 첫 승 사냥에 실패해 불안하게 대회를 출발했다.인도가 세계 랭킹 73위로 약체인 만큼 이날 패배는 더 뼈아플 수밖에 없다. 27위인 한국은 경기 내내 인도를 상대로 고전했고, 결국 풀세트 접전 끝에 무릎을 꿇었다.경기 내내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정지석은 마지막까지 코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격을 이끌 수 있는 확실한 에이스인 만큼 결장 이유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경기 후 정지석에게 직접 이유를 묻자 "허리가 좀 안 좋은 상태"라고 밝혔다. 벤치에서 팀의 패배를 지켜봐야 했던 정지석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정지석은 "일단 선수라면 소집된 이상 몸 관리를 잘하고, 항상 출전한 준비가 돼야 한다"면서 자책했다. 이어 "분위기를 잘 추스리고 내일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내 부상보다는 팀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일 오후 중국 항저우 린핑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배구 조별리그 1차전 한국과 인도의 경기에서 인도에 패한 대표팀 선수들이 인도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항저우=황진환 기자임 감독은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정지석에게 휴식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지석은 "감독님은 준비를 하라고 하셨고, (경기 내내) 몸을 풀고 있었다"면서 "(전)광인이 형과 (나)경복이 형의 경기력이 좋아서 출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경기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비록 경기에 출전하진 않았지만 에이스로서 패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정지석은 "배구를 하면서 혼자 못 뛴 건 처음이라 힘이 들었다"면서 "여기까지 와서 경기에 뛰지 못해 화가 났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웃으면서 응원을 했는데, 다음 경기는 뛰어서 보탬이 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하지만 여전히 정지석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그런 와중에 한국은 21일 오후 3시 30분(한국 시각) 열릴 조별 리그 2차전에서 캄보디아를 상대로 다시 첫 승 사냥에 나선다. 인도가 2연승으로 이미 조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캄보디아를 꺾어야 2위로 12강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다.캄보디아는 랭킹권 밖에 있을 정도로 인도보다 약체로 꼽힌다. 한국이 캄보디아를 잡고 2006년 도하 대회 이후 17년 만의 정상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지 지켜볼 일이다.

남자배구, 출발부터 충격패…랭킹 73위 인도에 졌다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03&aid=0012102795

인도전 패배, 2012년 이후 11년 만[항저우(중국)=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일 중국 항저우 린핑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배구 조별리그 C조 1차전 대한민국 대 인도 경기, 한국 임도헌 감독이 작전지시를 하고 있다. 2023.09.20. kkssmm99@newsis.com[항저우=뉴시스]김주희 기자 = 한국 남자배구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인도에 충격패를 당하며 험난한 행보를 예고했다.임도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0일 중국 항저우 린핑 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인도와의 아시안게임 남자배구 C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세트 스코어 2-3(27-25 27-29 22-25 25-20 15-17)으로 졌다. 당초 한국(27위)이 73위의 약체 인도에 여유있는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한국은 이날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한국 남자배구가 인도에 패한 건 2012년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배구연맹(AVC)컵 이우 11년 만이다. 당시에도 세트 스코어 2-3으로 졌다.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인도, 캄보디아와 함께 C조에 묶여있다. 한국은 C조 1위가 유력하단 평가를 받았지만, 1차전부터 패배를 내주며 체면을 구겼다. 사실상 '참사'다. 한국은 천신만고 끝에 1세트를 따냈다. 초반 순조롭게 경기를 풀어나간 한국은 11-7로 달아났지만, 이내 집중력이 흔들리며 16-17로 역전을 당했다. 시소게임을 벌이던 한국은 나경복(국방부)이 해결사로 나서면서 다시 힘을 냈다. 21-22에서 상대 공격을 쳐내며 동점을 만든 나경복은 24-24에서 공격을 성공하며 리드를 가져왔다. 25-25에서는 다시 강타를 선보여 우위에 섰다. 이어 상대 공격 범실로 1세트를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한국은 2세트에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 상대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끌려가던 한국은 22-23에서 김규민(대한항공)의 블로킹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26-26에서 나경복의 득점으로 한 점차로 앞섰다. 그러나 내리 3점을 빼앗기며 아쉽게 2세트를 헌납했다. 세트 스코어 1-1로 맞선 채 맞이한 3세트에서 한국은 더 크게 흔들렸다. 인도의 날카로운 속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연거푸 실점하며 고전했다. 14점에 묶인 채 인도에 21점을 내주며 7점 차까지 밀리던 한국은 3세트 막바지 맹추격을 하며 21-23까지 쫓았다. 그러나 더 이상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3세트마저 빼앗겼다. 벼랑 끝에 몰린 한국은 4세트에서 공격력이 다시 살아나며 인도를 몰아쳤다. 6-6에서 나경복의 공격과 황택의(국군체육부대)의 서브 에이스 등 내리 4점을 뽑아내 인도를 따돌렸다. 나경복과 전광인(현대캐피탈)은 10-8에서도 번갈아 점수를 내며 14-8로 도망가는 점수를 쌓았다. 한국은 계속해서 3~4점 차 리드를 유지하며 승부를 5세트로 끌고 갔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은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데 실패했다. 공격 범실에 발목이 잡힌 한국은 5-8로 끌려갔다. 계속해서 따라가며 12-12 동점에 성공한 한국은 12-14에서 다시 균형을 맞춰 듀스 승부를 벌였다. 나경복의 공격이 통하며 15-14로 경기를 뒤집은 한국은 역전극을 쓰는 듯했지만 15-16에서 허수봉의 공격이 가로 막히며 패배를 막지 못했다.

11년 만에 한국 꺾은 인도 배구 감독…"승리 자신 있었다"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03&aid=0012104330

한국 남자배구, 풀세트 끝 충격패2012년 AVC컵 이후 11년 만 패배[항저우(중국)=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일 중국 항저우 린핑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배구 조별리그 C조 1차전 대한민국 대 인도 경기, 세트스코어 2대3으로 인도에 패한 한국 선수들이 인도 선수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9.20. kkssmm99@newsis.com[항저우=뉴시스]김주희 기자 = 인도 남자배구 대표팀이 11년 만에 한국을 꺾고 사기를 올렸다.한국은 20일 중국 항저우 린핑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배구 C조 조별리그 1세트에서 인도에 세트 스코어 2-3(27-25 27-29 22-25 25-20 15-17)으로 졌다.한국 배구가 인도에 패한 건 2012년 베트남에서 벌어진 아시아배구연맹(AVC)컵 이후 11년 만이다.세계랭킹 27위의 한국은 73위의 인도를 한 수 아래로 여겼지만, 승부에 돌입하자 더 힘을 낸 쪽은 인도였다.첫판부터 인도에 덜미를 잡힌 한국은 충격패 속에 분위기마저 가라앉았다.반면 한국을 잡아낸 인도는 기세를 더 올랐다. 앞서 캄보디아를 꺾었던 인도는 한국까지 잡아내며 C조 1위(2승)를 확정했다.마이인포에 따르면 사카르 자이디프 인도 대표팀 감독은 경기 뒤 한국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이겼다. 우리 팀이 정말 좋았기 때문"이라며 기쁨을 드러냈다.그러면서 "선수들의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토너먼트에도 자신이 있다. 선수들은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이고, 도전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인도는 D조 2위(대만-몽골전 승자)와 12강에서 만난다."우리는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고, 조별리그 1위 팀"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자이디프 감독은 "인도 배구의 좋은 날은 분명히 우리 앞에 있다"고 말했다.역대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수확했던 인도는 이번 대회에서 4번째 메달에 도전한다.자이디프 감독은 "우리는 노력을 믿는다. 그것이 정답이다. 메달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스포츠가 그것을 말해 줄 것"이라고 보탰다.한편 인도에 무릎을 꿇은 한국은 21일 오후 3시30분 캄보디아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여기서 승리해야 C조 2위로 12강 티켓을 얻는다.12강에 진출할 경우 D조 1위 파키스탄(2승)과 겨룬다.

인도에 진 남자배구, 12강 상대 파키스탄 경계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91545?sid=104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첫 경기에서 세계랭킹 73위 인도에 덜미를 잡힌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이 12강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하지만, 12강전부터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세계랭킹 27위인 한국은 오늘(21일) 오후 중국 항저우 린핑 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C조 2차전에서 한 수 아래 상대 캄보디아를 꺾으면, C조 2위로 12강에 진출합니다.12강전 6경기는 내일 열립니다.C조 2위와 12강에서 붙을 D조 1위는 파키스탄입니다.파키스탄은 세계랭킹 51위로, 27위인 한국보다 낮습니다.한국 남자배구는 프로 선수가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파키스탄에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지난달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는 한국이 파키스탄을 세트 스코어 3대 1로 누르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아시아선수권에서도 한국은 파키스탄에 고전했습니다.어제 인도와의 첫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대 2로 패한 아픈 기억을 떠올리면, 파키스탄을 향한 경계심을 풀 수도 없습니다.  
  
  
  
승리한 인도 선수들한국 대표팀 맏형 한선수는 "파키스탄, 인도가 유럽 배구를 배웠고 성장했다"며 "우리도 더 성장해야 상대를 누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한국 남자배구는 1966년 방콕 대회부터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까지 14개 대회에서 연속으로 시상대에 올랐고 1978년 방콕, 2002년 부산, 2006년 도하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하지만, 최근 한국 남자배구는 아시아 강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일본과 중국이 불참한 2023 아시아 챌린지컵에서는 4강에서 바레인에 덜미를 잡혀 3위에 그쳤고, 2023 아시아배구선수권에서도 4강전에서 중국에 패하는 등 고전 끝에 5위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임도헌 감독과 선수들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목표는 금메달"이라며 이번 대회를 한국 남자 배구의 변곡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하지만, 첫 경기에서 인도에 충격패하면서 메달 획득도 장담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을 확인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